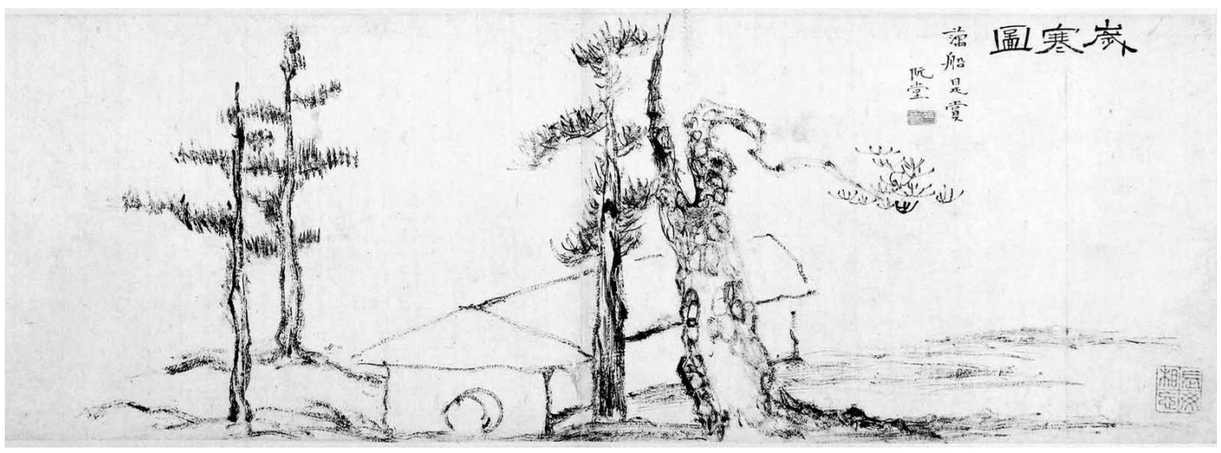
나무에 담긴 조선 성리학자 13인의 삶과 철학

나무를 품은 선비

강판권 지음



시대를 앞서간 조선시대 선비들은 회화나무와 배롱나무, 백송, 잣나무 등 한 그루 나무에 삶과 철학을 투영시켰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 시절에 그린 '세한도'.

1592년 4월, 해진 옷을 입은 한 신하가 선조에게 피난하지 말 것을 진언한다. 왕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에게 비단 한 필을 내린다. 그러자 신하는 "저 한 몸의 추위는 하찮은 일이오니 부디 남쪽에서 싸우는 병사들의 옷을 만들어주소서"하며 사양한다. 임금은 끝내 백성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다.

신하는 성균관 유생 시절 한양성 남쪽에 위치한 '목멱산'(남산)에 관한 부(賦)를 지었다. 이 시에서 그는 남산에 구기자가 많아 '목멱'이라 불린다고 주장했다. 그에게 구기자는 백성이며 하늘이었다. 그 선비는 강진 옴천면 태생의 문신 조팽년이었다.

'나무 인문학자'로 불리는 강판권 계명대 사학과 교수가 최근 '나무를 품은 선비'를 펴냈다. 이 책에서 강교수는 나무에 담긴 조선 성리학자 13명의 삶과 철학을 들려준다. 조선시대 선비와 나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는 머리말에서 "조선시대 지식인들의 나무에 대한 관심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그루의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이 나무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나무의 삶이 곧 자신의 삶이기 때문이었다"고 밝힌다.

저자는 성리학자들이 남긴 문헌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삶의 공간과 나무를 직접 찾아 발품을 팔았다. 이 책은 크게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나무에게-선비정신을 배우다 ▲생기로 가득 찬 여름나무에게-지속성을 배우다 ▲바람을 견딘 가을나무에게-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다 ▲변함없이 고고한 겨울나무에게-지조를 배우다 등 사계절로 구성돼 있다. 남명 조식(매실나무)을 비롯한 이상적(살구나무), 장승업(해당화), 신흠(박태기나무), 서유구(단풍나무), 강희안(석류나무), 윤선도(대나무), 김종직(차나무), 곽종석(버드나무) 등 시대와 불화한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나무와 연결시키는 저자의 시각이 새롭다.

쌍괴당 조성한은 1674년 무고로 연천 현감 자리에서 파직된다. 이후 강원도 홍천 녹운동에 거처를 정하고 집앞에 회화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그가 굳이 '학자수'로 불리는 회화나무를 심은 뜻은 후손 중에 큰 인물이 나길 바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비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었다.

조선 중기 문장가인 신흠은 동생 신감에게 '박태기나무꽃'을 비유하며 이별을 아쉬워한다. '밥을 튀긴 것처럼' 줄기에 붉은 꽃이 다닥다닥 붙어 피는 박태기나무는 형제애를 상징한다.

역관 이상적 시에는 살구나무가 등장한다. 그를 비롯한 조선 사신들은 북경 가는 길목에 자리한 중국 랴오닝성 남서부에 있는 행산보(杏山堡)를 거쳐갔다. 그런데 그곳은 공교롭게도 청나라 군대가 명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주민과 닭, 개까지도 살육한 곳이다. 살구나무 이름 역시 '개를 죽이다'(殺狗)에서 유래했다. 그는 중국에 갔을 때 경세와 관련된 글을 모은 '황청경세문편' 120권을 구입해 제주도에서 유배중인 스승 추사 김정희에게 보냈다. 제자의 정성에 감복한 추사는 답례로 '세한도'(歲寒圖)를 그려줬다.

저자의 꿈은 '나무를 통해 성리학의 가치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만드는 것'이다. 나무와 결합한 저자의 독특한 안목이 새로운 역사읽기의 전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고대~현대 서양 철학 명작 50권 쉽게 풀어내

처음 만난 철학

히라하라 스구루 지음

"철학은 쓸모없다(돈이 되지 않는다)." "철학서는 어렵다."

철학서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개념과 난해한 표현 때문에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기 힘들어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지식을 탓하며 결국 책읽기를 포기하고 만다.

철학은 어려운 것이라는 편견을 갖는 이들을 위한 철학 안내서 '처음 만난 철학'이 출간됐다. 저자 히라하라 스구루는 책머리에 자신도 철학서를 처음 읽을 때 마치 국어와 흡사한 외국어로 쓰인 책을 읽는 듯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철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철학서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둔 것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필로소피 가이드'를 개설했다. 그러면서 점차 '철학의 언어'를 번역하는데도 익숙해졌다고 얘기한다.

'처음 만난 철학'은 "철학 없이 인생도 없다"고 외치는 저자가 서양 철학사에서 중요한 획을 그은 명작 50권을 소개하는 책이다. 철학이 어떻게 탐구되고 전해져 왔는지 역사적 배경이나 전문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통해 철학을 모르는 사람들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다.

각 장은 철학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구분돼 있다. 1장은 신화에서 벗어나 개념으로 세계를 설명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을, 2장은 기독교 신학에 지배당한 중세 철학을, 3장은 보편성을 탐구하는 근대 철학, 4장과 5장은 다양한 주제를 논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책들을 다룬다.

책에서 소개하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군주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 '죽음에 이르는 병', '비극의 탄생' '인간의 조건' 등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책들이다. 저자는 이런 책을 읽지 않은 것은 인생에서 엄청난 손실이라고 이야기한다.

"나는 철학의 가능성을 믿는다. 이 세상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삶을 이뤄낼 조건을 찾고 그것을 실현할 원리를 만들기 위해 철학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그마북스·1만6000원〉

/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절망 독서=누구나 살아가면서 절망을 경험한다. 한번 좌절을 겪게 되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언제 극복이 될지 쉽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자 가시라기 히로키는 절망한 이들에게 섣부른 격려나 희망보다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 독서'를 권한다. 마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은 내 이야기다", "나만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책과 이야기를 만났을 때 위로받을 수 있다.

〈다산초당·1만3000원〉

▲지구를 소개합니다=현직 과학 교사가 안내하는 친절한 지구과학 설명서. 중고등학교 통합과학·지구과학·물리 교과서를 바탕으로 쓰였지만 내용의 분류 체계와 지식에의 접근 방식은 기존 교과서와 상당 부분 다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공식과 사칙연산을 곁들여서 설명하기도 했다. 본문에 삽입된 그림들은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자가 직접 그렸다.

〈우리교육·1만8000원〉

▲이휘소 평전=이휘소의 삶과 죽음에 얽힌 온갖 소문과 억측을 종식시킨 한국 과학자 평전의 걸작. 이휘소 박사의 유일한 한국인 제자 강주상 전 고려대학교 교수는 잘못된 소설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적극적인 언론 투고 활동을 통해 스승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2007년 이휘소 박사 서거 30주기에 맞추어 '이휘소 평전'이 출간됐으며 10년 동안 구판의 오류를 수정해 40주기에 맞춰 재출간됐다.

〈사이언스북스·1만7500원〉

▲튀르크인 이야기=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튀르크 민족 통사. 유라시아 북방초원에서 발발한 흉노제국(기원전 209년~)으로부터 시작해 돌궐, 위구르, 셀주크, 오스만 제국에 이르기까지 대략 2200년의 제국사를 다루고 있다. 지중해를 건너 유럽 전체를 가지려 했던 튀르크인, 그들의 원대한 꿈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은 비록 아나톨리아 반도에 둥지를 틀고 있지만, 그들의 역사의 궤적만큼은 화려하다.

〈리수·1만9800원〉

▲6월 민주항쟁=올해로 30주년을 맞은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연구서다. 그동안 6월 항쟁에 관한 책이 많이 발간됐지만 본격적인 학술서는 많지 않았다. 미국 등지에서 다양한 관련 문건이 공개되고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주화 관련 사건과 단체 등에 대한 새로운 평가도 진행되고 있다. 6월 민주항쟁의 전개와 그 시행착오를 분석해 보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울아카데미·3만8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하늘 교실=밤하늘을 빼곡하게 수놓은 별과 달, 행성과 우주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사진으로 보여 주는 어린이를 위한 천문학 책.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와 별, 달과 오로라의 모습을 책 곳곳에서 보여 주고 밤하늘을 보며 아이들이 가질 법한 물음을 던진다. 〈봄나무·1만5000원〉

▲늑대가 뭐래?=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얼마나 힘겨운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림책. 단 한 마디로 시작된 말에 조금씩 살이 붙으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과정을 통해 무심코 행하는 '~카더라'의 위험성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다.

〈푸른숲주니어·1만1000원〉

▲아름다운 아이 크리스 이야기=오기가 없는 크리스의 하루를 통해 진정한 우정에 대해 곱씹게 만들어 주는 작품이다.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위기에 놓인 크리스의 현재와, 오기와 함께했던 과거를 오가며 독자들로 하여금 둘 사이의 진한 우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아름다운 아이 샬롯 이야기' 함께 나왔다.

〈책과콩나무·1만1000원〉

▲인터넷, 알고는 사용하니?=어린이 IT 교육의 선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스웨덴 카린 뉘고츠가 쓴 디지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입문서. 인터넷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인터넷의 실체를 바로 알고 컴퓨터 코딩과 프로그래밍에 대해 더욱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음이음·1만원〉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중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솔향기맑은터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빼는날 화, 목, 토, 일
▶ 불빼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A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